



청정 자연을 품은 그곳! 스위스 그린델발트 인터라켄

GRINDELWALD
& INTERLAKEN

글 · 사진 대외홍보팀 김효진 선임과장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기차역을 찾았다. 해가 지기 전 그린델발트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두툼한 캐리어를 객차 한쪽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덜컹거리는 차창 밖으로 쾌청한 하늘이 보였고 물가에서는 낚싯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청록색 호수가 거울처럼 땅을 비추는 신묘한 광경이 창에 아른거렸다. 서둘렀는데도 그린델발트에 도착하자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저녁으로 따뜻한 풍두를 먹고 숙소에서 이른 잠을 청했다. 아침에 호텔 발코니에서 압도적인 풍경과 마주했다. 순백을 자랑하는 찌를 듯한 빙벽이 손에 닿을 듯 선명하게 보였다. 마을을 둘러싼 해발



2,168미터의 피르스트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 곤돌라 탑승장으로 향했다. 탑승장에는 곤돌라 역과 레포즈 포인트가 표기돼 있었다. 피르스트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즈로는 집라인, 마운틴카트, 글라이더, 클리프 워크 등이 있었다. 당일 즐길 수 있는 레포즈에는 녹색 불을, 즐기기 어려운 레포즈에는 빨간 불을 점등했는데, 내가 간 날에는 야속하게도 폭설이 내려 전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다. 눈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말았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취소된 하루 일정의 대안으로 스위스 여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인터라켄(Interlaken) 시내를 구경하러 갔다.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었지만, 쇼핑의 거리 회에벡(Höheweg)이나 14세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 운터젠(Unterseen), 도시를 가로지르는 비취색 아레(Aare) 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아레 강은 알프스의 빙하수가 녹아 형성된 것으로 멀리 독일까지 뻗어 있었다. 또한 인터라켄 구간 동쪽의 브리엔츠 호수와 서쪽의 튜호수를 연결하는 강이기도 했다. 참고로 인터라켄은 독일어로 '호수(Laken) 사이(Inter)'를 뜻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광지이자 컨벤션 센터인 인터라켄에서는 유럽 마을의 한적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1. 눈보라 치는 피르스트
2. 호텔 발코니에서 본 빙벽
3. 인터라켄 동역
4. 피르스트 곤돌라 역

